

제 목 : 2024년 3/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김태정)는 2024년 3/4분기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제조업은 조선업 업황 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었으며, 서비스업 생산 또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해외기업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과 생산물량 측면에서 기업별로 체감경기가 차별화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7~8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며 물가오름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이어갔다.

□ 향후 전남 서남부지역 경기는 제조업이 전반적인 업황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업황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은 소비의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서비스업 업황 개선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 (참고) 최근 전남지역 외국인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인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정적 정착 및 생산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8p. (참고) 전남지역 외국인 인구 빠르게 증가'를 참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3/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문의처: 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안중섭, 조사역 김민수
Tel: (061)241-1122 Fax: (061)242-1189 E-mail: mokpo@bok.or.kr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mokpo>)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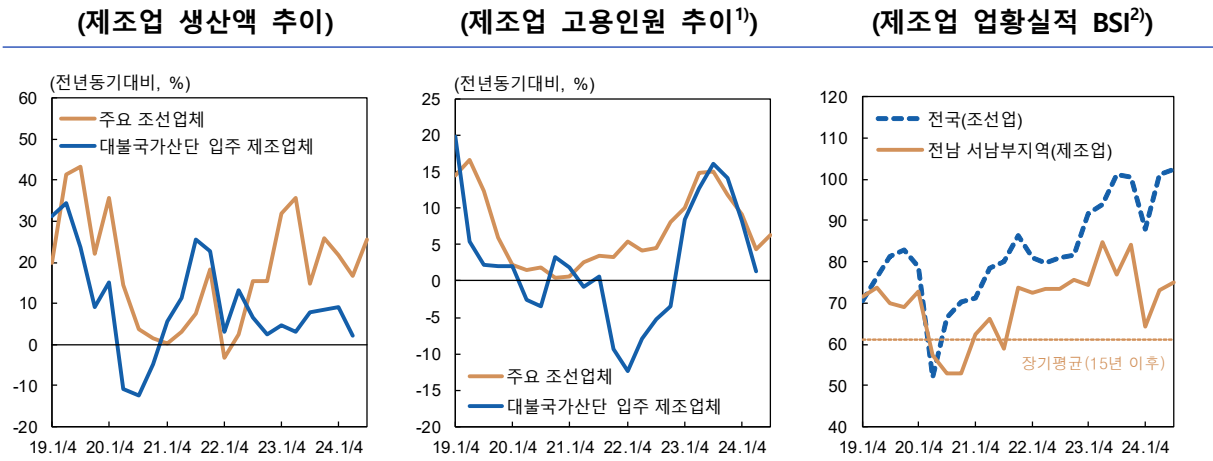
(붙임)

2024년 3/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¹⁾

1. 생산

1. 제조업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었다. 2024년 7~8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경상)은 전년동기대비 25.7% 증가하였다. 2022년 이후 고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높은 수준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²⁾ 생산 증가와 함께 고용규모도 늘어나면서 7~8월중 주요 조선업체 고용인원은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다. 고용인원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주요 조선업체가 양적측면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에 기인한다.³⁾ 한편, 조선업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생산액과 고용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업체의 생산액 증가율은 주요 조선업체와 비교시 낮아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4년 7~8월중 제조업 업황실적 BSI(심리지수)는 지난 2/4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계속해서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다.⁴⁾

그림 1.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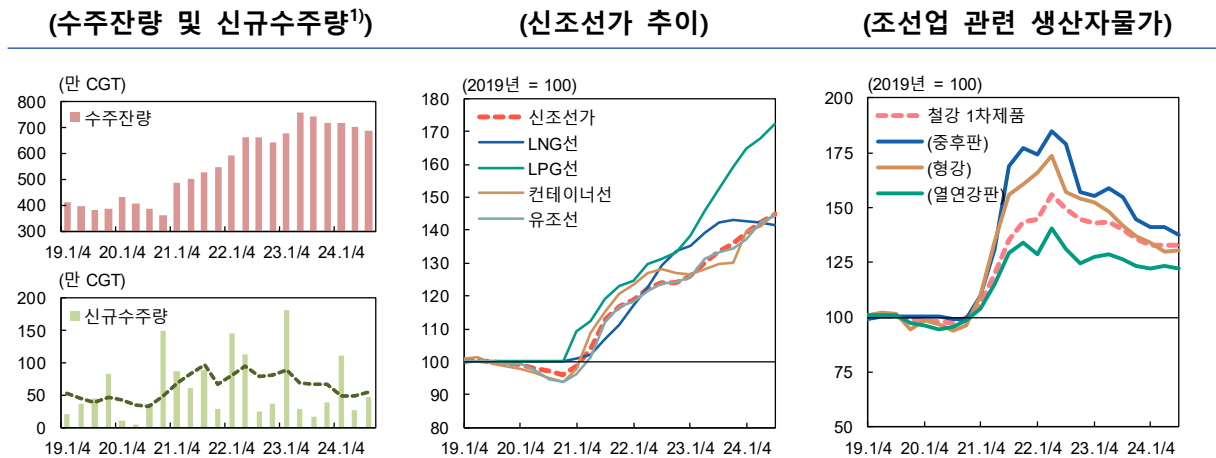


주: 1) 주요 조선업체는 분기중 평균 고용인원, 대불국가산업단 입주 제조업체는 분기말 고용인원 기준
 2) 2024년 8월까지 데이터를 활용(기간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1) 본 자료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2024년 8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서술하였다.
 2) 선박은 수주 후 설계, 건조, 인도까지 대체로 2년의 시차가 존재해 올해는 2022년 이후에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생산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2024년 6월 이후 기업경기조사(BSI) 수치는 표본개편 등의 영향으로 2024년 5월 이전 수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조선업은 업황호조가 지속되고 고선가 지속, 철강제품 등 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조선업체들이 향후 몇 년간 충분한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며,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으로 2022년 이후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홍해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컨테이너선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조선업체들 또한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신규수주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⁵⁾ 철강 등 선박건조와 관련된 자재 가격 또한 안정된 모습으로 비용측면에서도 수익성 개선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수급 여건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였지만, 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

그림 2.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의 향후 업황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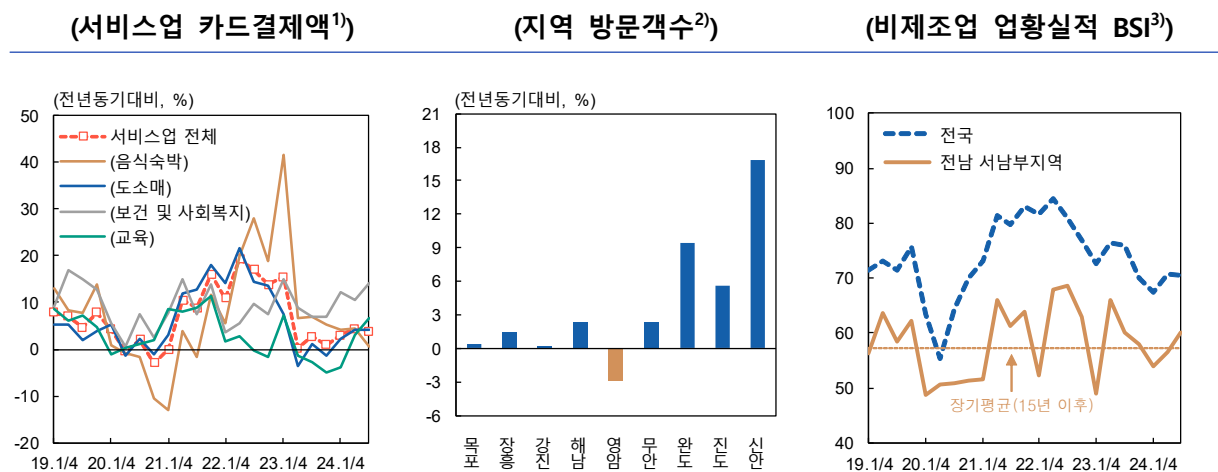
주: 1) 점선은 4분기 이동평균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Clarksons Research

3. 한편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기술력 부족, 해외 기업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조선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제조업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실제로 체감하는 업황은 다소 제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업체와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과 생산물량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이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전체적으로는 업황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규모별로 체감하는 업황은 차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홍해 후티 반군 사태에 따른 수에즈 운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6)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통해 양적측면에서 대체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채용(E7비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최근 국내 대형조선사가 이용하는 선박블록의 생산물량 일부가 중국 등으로 이전되면서 대불국가산단 소재 제조업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4.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8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서비스업 가맹점 카드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다. 한편 지역 방문 관광객 수는 증가하였지만 업종별로 업황은 차별화를 보였다. 여행사, 렌터카 업체 등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 매출규모는 전년동기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⁸⁾ 도소매업 카드결제액은 전년동기대비 4.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계속되고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가운데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가 지난 2/4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7~8월중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지난 2/4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⁹⁾

그림 3. 전남 서남부지역 서비스업 생산동향



주: 1)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서비스업 가맹점에서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된 금액 기준
 2) 2024년 7~8월중 외부방문객수 기준(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
 3) 2024년 8월까지 데이터를 활용(기간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5. 앞으로 서비스업 업황은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물가상승률 둔화로 가계의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가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은 소비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비스업 업황 개선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여행 확대에 따른 관광객 감소,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채널 위축,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등도 향후 서비스업 업황 개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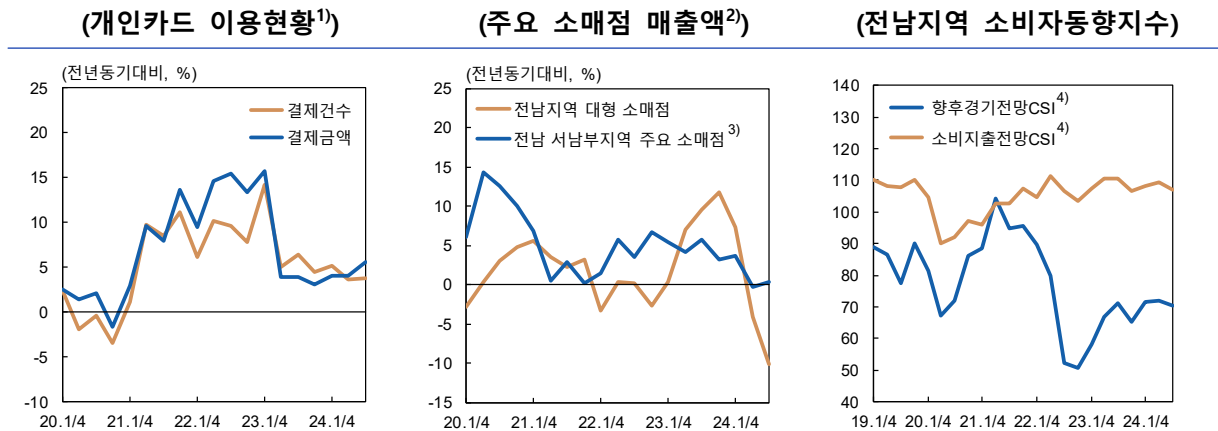
8) BC카드, 신한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내국인의 관광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7~8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관광지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9)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서비스업 이외에도 건설업 등 여타 업종의 업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수 요

6. 소비는 제조업 업황호조, 물가상승률 둔화 등에 힘입어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7~8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였다.¹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3.0%(7~8월중 전남지역 CPI상승률 2.5% 적용)로 나타났다. 한편, 7~8월중 주요 소매점 매출액(경상)은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다.¹¹⁾ 앞으로 소비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흐름을 이어가면서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완만하게 회복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경기여건 및 소비심리 회복 관련 불확실성, 높은 물가수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은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전남 서남부지역 소비동향 및 소비지출 관련 심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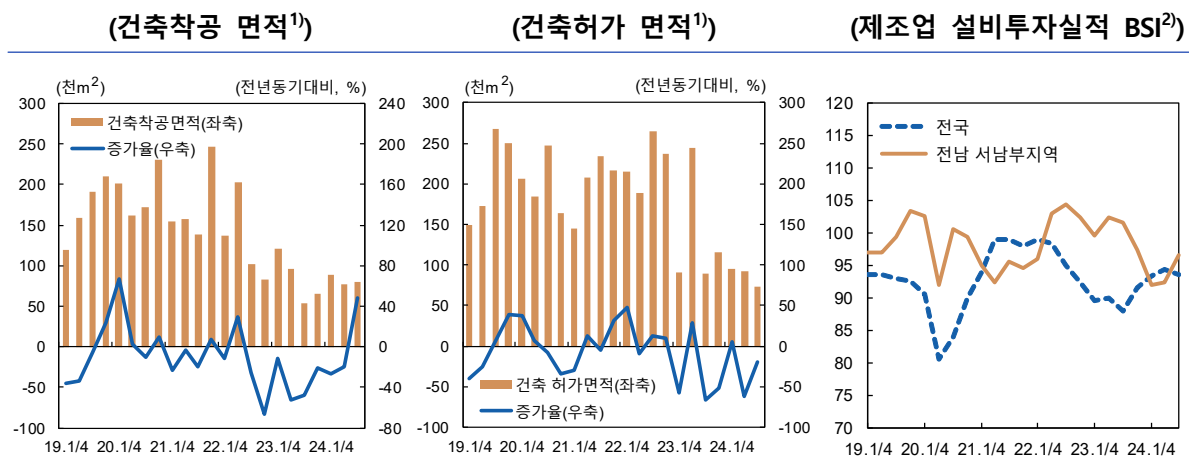
주: 1) 전남 서남부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기준
 2) 2024년 3/4분기 증가율은 전남지역 대형 소매점의 경우 7월, 전남 서남부지역 주요 소매점은 7~8월 기준
 3) 대형마트 이외에도 슈퍼마켓 등 소규모 소매점을 포함
 4)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으로 2024년 9월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간중 평균수치를 활용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소매점

7.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8월중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48.3% 증가하였으며 허가면적은 19.7% 감소하였다. 다만 건축 착공면적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기저효과가 증가율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건비,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숙련공의 이탈, 은퇴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공사진행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심리가 부진하고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채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향후 건설투자는 상당 기간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근무·거주하는 인구가 외부지역에서 사용한 소비금액도 포함하고 있다.
 11) 2024년 7월중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경상, 불변)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0.2%, 12.8% 감소하였다.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대형소매점의 경우 고객 수와 매출 증가율이 부진한 모습으로 파악되며 객단가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설비투자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은 주요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증가하였다. 7~8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의 설비투자실적 BSI는 지난 2/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설비투자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업황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 회복이 다소 더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전남 서남부지역 설비투자는 대형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노후설비 교체, 시설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금조달 애로,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여타 부문에서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전남 서남부지역 투자활동(건설 및 설비) 현황



주: 1) 기간중 평균 수치 기준(2024년 3/4분기 증가율은 7~8월 기준)

2) 2024년 8월까지 데이터를 활용(기간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3.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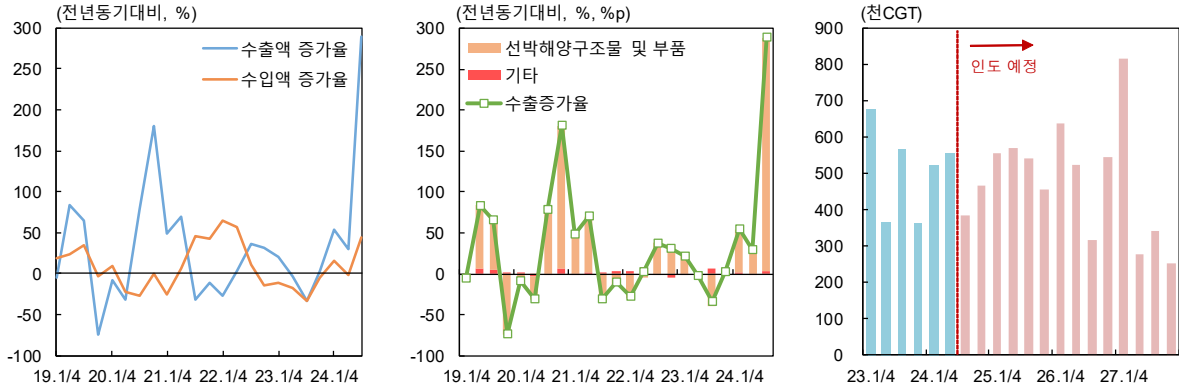
9. 수출액은 선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 7~8월중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8.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4.3% 늘어났다. 이와 같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수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선박 이외 품목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3% 늘어났다. 향후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인도 물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액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별 업체의 생산 및 수출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전남 서남부지역 수출입 현황

(수출입 추이)

(수출액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주요 조선업체 선박인도 물량)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Clarksons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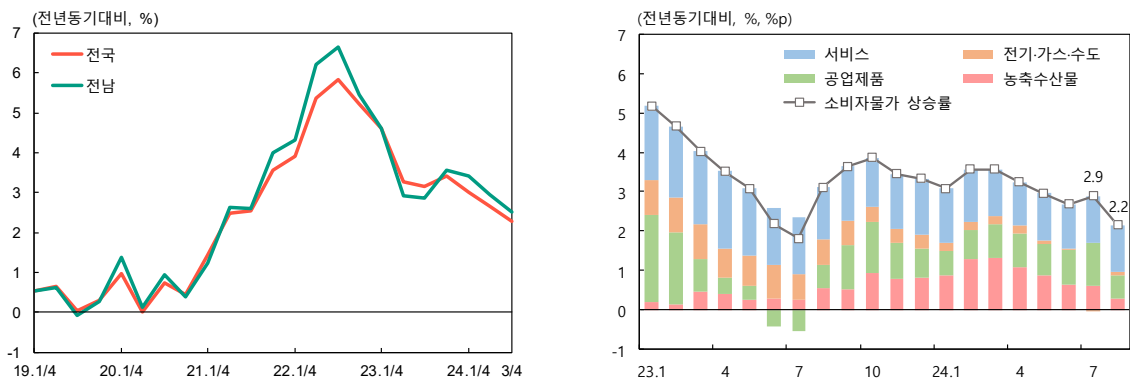
4. 물가 및 부동산 가격

10. 2024년 7~8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5%로 올해 상반기(1/4분기 +3.4%, 2/4분기 +3.0%) 이후 둔화흐름을 이어 나갔다.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였으며¹²⁾ 8월에는 2.2% 오르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여기에는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이 낮아진 점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그림 7.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¹⁾)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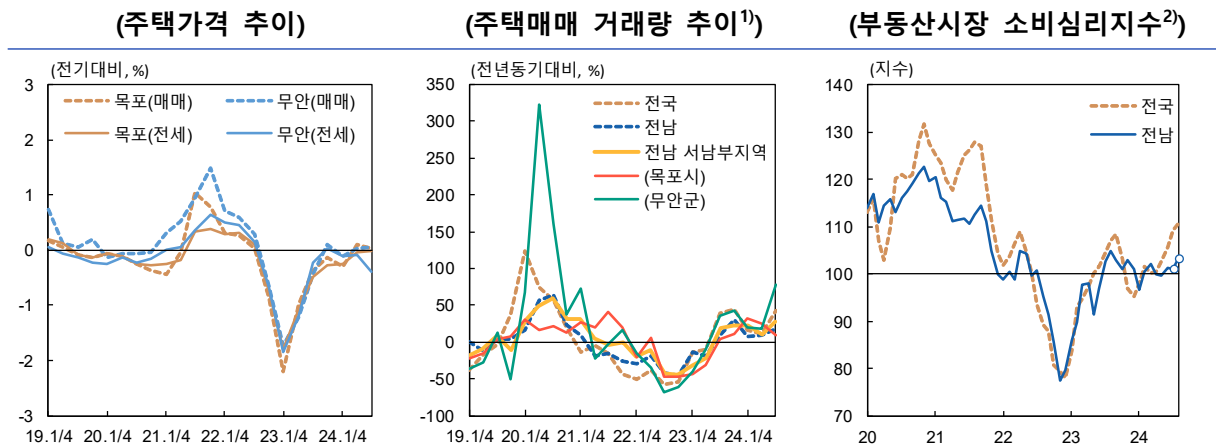
주: 1) 2024년 3/4분기는 7~8월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12) 2024년 7월중 물가상승률이 전월대비 반등한 데에는 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율 일부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1. 2024년 7~8월중 목포시, 무안군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목포 +0.03%, 무안 +0.04%) 반면, 전세가격은 하락(목포 -0.02%, 무안 -0.38%)하였다. 7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8.1%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남지역 부동산시장(주택, 토지) 소비심리지수는 보합 수준을 이어나갔다. 향후 부동산시장은 금리 하락 기대에 따른 심리회복 등 상방리스크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 미분양 물량 지속 등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면서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시장 동향



주: 1) 2024년 3/4분기는 7월 기준

2)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수가 95 ~ 114의 값을 가지면 보합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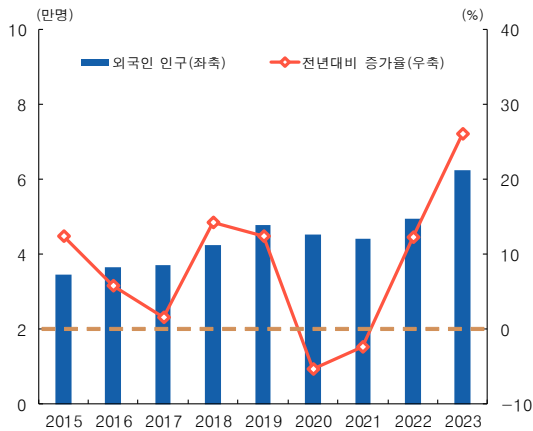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전남지역 외국인 인구 빠르게 증가

본 자료는 한국은행 목포본부 김민수 조사역이 작성하여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2024.9)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의 외국인 인구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의 외국인 수는 전년말대비 약 1.3만명 증가한 6.2만명을 기록했다. 증가율(+26.1%)로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23년 중 전남지역 총 인구는 내국인 감소(-0.8만명)에도 불구하고 약 5천명 증가하였다.

전남 외국인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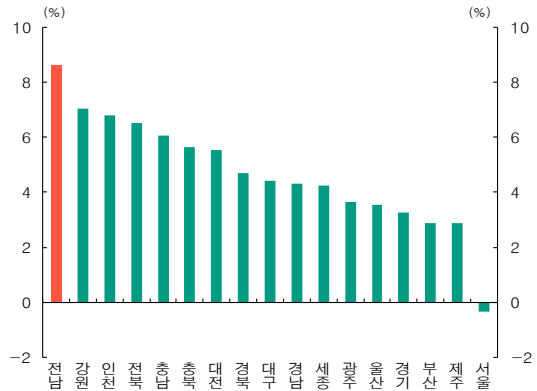
전남지역의 외국인 인구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약 3.5%로 전국 평균인 3.7%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외국인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6%씩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남지역에서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로 인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부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1) 전남지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26.1% 수준으로 전국 평균 19.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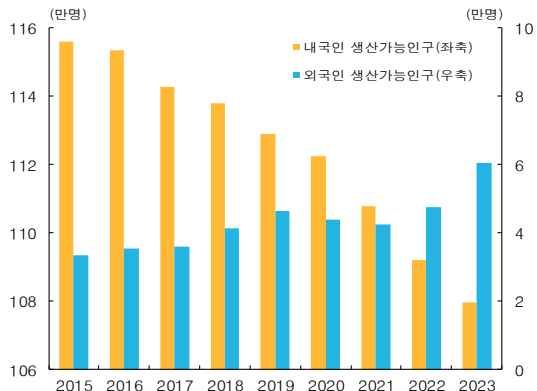
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내국인 생산가능인구²⁾가 빠르게 감소하여 왔다. 반면 취업 목적³⁾으로 전남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늘어나면서 외국인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5년 평균 외국인 인구 증가율¹⁾



주: 1) 2019-2023년 중 전년대비 증가율의 단순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전남지역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2)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의 인구로 정의된다.
3) 전남지역 외국인 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 취업관련 (E-10, H-1~2) 비자 비중이 60.0%(전국 37.4%), 거주영주관련 (F-1~6) 비자 비중이 25.3%(전국 38.4%)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체류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력 유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⁴⁾ 쿼터를 크게 늘린 점이 작용했다. 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별 근로 추이를 살펴보면, 주로 고용허가제 쿼터가 크게 늘어난 제조업, 어업 및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는 조선업에 별도 쿼터(5천명 한도)가 한시적(2023~2025년)으로 부여되면서 외국인력 유입이 전남 서남부권 조선업 산단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더라도 외국인 인구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영암, 여수 등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목포, 완도, 해남 등에도 상당수 거주하는 모습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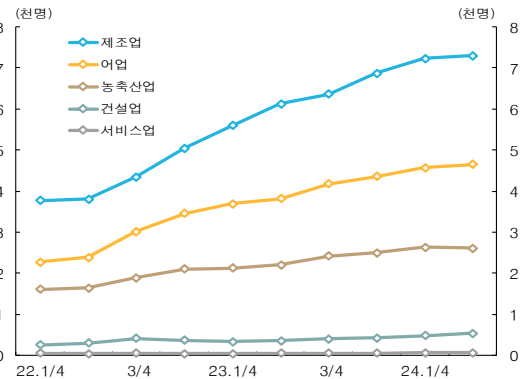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E-9) 쿼터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2024 ¹⁾
총 인원	52,000	69,000	120,000	165,000
제조업 ²⁾	37,700	51,300	75,840	95,000
조선업	-	-	5,000	5,000
농축산업	6,400	9,230	14,950	16,000
어업	3,000	4,610	7,620	10,000
건설업	1,800	2,760	3,220	6,000
서비스업	100	100	2,870	13,000
탄력배정 ³⁾	3,000	1,000	10,500	20,000

주: 1) 2024년 8월 기준
 2) 2021, 2022년도는 조선업을 포함하며 2023.4월에 조선업 단독 쿼터가 신설됨에 따라 2023, 2024년도는 조선업 제외
 3) 업종에 구분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배분
 자료: 고용노동부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장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5)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 외국인 인구 수는 영암군 9,625명, 여수시 8,046명, 목포시 5,502명, 나주시 5,122명, 완도군 4,752명, 순천시 3,615명, 해남군 2,922명, 무안군 2,754명, 진도군 2,691명 등의 순이다.

전남지역 외국인 산업별 근로 추이¹⁾



주: 1) 일반고용허가(E-9), 특례고용허가(H-2) 기준
 자료: 법무부

이처럼 전남으로의 외국인 유입은 지역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구인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⁶⁾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허가제 쿼터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외국인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저숙련 노동자가 대부분⁷⁾인 외국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외국인의 효율적인 일자리 배치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구직정보 제공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⁸⁾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지역 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전남지역에서 제조업의 인력 부족 현황(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은 2021년 5,026명 → 2022년 5,477명 → 2023년 5,338명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기준 전체 업종(농수산업 제외) 중 약 31.7%를 차지하고 있다.
 7) 전남지역 외국인 취업관련 비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저숙련 노동자인 비전문취업(E-9)이 66.3% 선원취업(E-10) 12.8% 계절근로(E-8)가 1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숙련 노동자로 취급되는 전문취업(E-1~7) 비중은 8.7%로 낮은 수준이다.
 8) 전남도는 기존 2곳(영암, 광양)이던 외국인 주민 정착 수행기관을 2024.8월에 추가적으로 2곳(목포, 순천) 확대하였다.